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가 핵심...9명 중 6명 이상 찬성 땀 해산

현재 심판 절차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향후 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 해산 결정은 현재 심리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내려진다.

우선 현재는 청구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청구서 등본은 통진당에 보낸다.

정부가 낸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청구 이유가 기재된다. 청구 이유에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토록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앞으로 현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

심판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 직권으로 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 내릴수도

칙,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 ▲정당 명목의 활동, 당수와 당 간부의 활동, 정당원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한다.

현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 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재는 그동안 관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형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

다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사례는 한번 있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됐다.

정당해산 심판은 현재의 5대 권한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심판)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강제해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며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해산 조항을 뒤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6일 TF를 구성,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한편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98년 현재 설립 이후 없었던 것이다.

연립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절차

- 1 법무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 및 결정
- 2 국회의 심의
- 3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
 - 찬성
 - 반대
- 4 현재 위헌 결정시 국회, 중앙선거위 통지 및 진보당에 청구서 송달 (청구서에 해산 요구 정당의 표시와 청구 이유 기재됨)
- 5 정당 해산 집행
 - 헌재 판결 기준에 따라 소속 의원 재직상실 여부 결정
 - 단체 정당 청산이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진보당 전역 재산 국고에 귀속



“해산”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안돼” 통합진보당원들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인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하라!”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원직 상실 여부도 현재 손에

해산 결정시 효력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 활동 등에서 향후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법조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는 정당해산 결정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른바 '창설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보당에 대한 해산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적·우회적' 정당 창립이나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가 정당해산을 심판할 때 법률적으로 여러 측면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보당 자체 뿐 아니라 진보당의 지부 등 '부본 조직', '특별 조직' 등도 모두 해산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진보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선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진보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잔액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상실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이나 선거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현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요구할 예정이어서 결국 현재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의 유지 여부도 판가름 전망이다.

법조계나 학계에선 법률 남용의 위험,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 국회의원의 의원직 획득 방식(지역구·전국구) 여하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와 상실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조치 제10호·유신망령 부활” 총력투쟁 나서

위기의 통합진보당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정으로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등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통합해 탄생한 진보 정당이다. 진보 진영의 단일대오로 기대감을 모았던 진보당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대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

올랐다. 그러나 총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빚어지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당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대립하면서 내부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종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중복 논란까지 휘몰아쳤다. 진보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않아 부결

되는 등 극심한 내분 끝에 지난해 9월 분당 사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 8월말 불거진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은 진보당에 치명타가 됐다. 이번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처럼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하자 진보당은 '민주주의 파괴', '유신망령', '헌법위반' 등의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장외로 나서는 등 총력 저항하고 나섰다.

우선 진보당은 이날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와 긴급투쟁본부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기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며 “부정하게 정권을 차지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후계자가 모여 만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신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년 대선을 앞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석기 대표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라고 공격한 일 등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모두 수고한 가족께 힐링이 되는 해외여행

중국북경
청화대학방문 온천힐링 4일

ALL 포함 750,000

제1차11/26, 제2차12/03, 제3차12/10

※6대특전제공 : 무안공항출발, 이석기나항공국기이용, 북경4대관광지, 중국최고 공원관광, 북경5대특전제공, 중국최고의명문대학화대방문, 수험표지참시수험료100,000원할인, NO TIP상용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겨울방학 가족과함께 일본히타 조이펜션으로 온천 여행

78% 전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78% 전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78%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특급호텔 규슈 3박4일

78% 전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78% 전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78%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특급호텔 규슈 3박4일

겨울방학에 무안에서 떠나는 동남아여행(방콕, 싱가포르)

특급호텔 숙박

기간 2014.1/04~2/22 (매주토요일출발)

무안 - 상해/싱가포르 5일 1,359,000

무안 - 상해/방콕,파타야 5일 1,050,000

※불포함: 현지가이드, 기사, 렌터카 개인장비

무안-베트남 캄보디아 전세계

겨울방학 세계가 인정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절경과 찬란한 역사와의 만남!
(12/27~1/21, 단 6회) ※건교부 인가 조건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총액 1,299,000

※불포함: 개인장비,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팀

겨울방학때 무안공항 떠나는 캄보디아(씨엔립)여행!! BBC선정특기 전예목 가짜야콧

무안- 캄보디아 (씨엔립)여행

기간 2014.1/01~2/26 (매주수요일, 토요일 출발)

3박4일 599,000 3박5일 9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팀(80%), 싱글차지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장사/장가계 5일 899,000

곤명/석림/구황동굴 5일 1,069,000

※불포함: 항공사, 기사/가이드 팀

국내여행/섬여행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W10,000), 석식, 유류할증료(W24,2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W10,000), 현지지불관람, 자유식식

겨울방학 미동부 IVY LEAGUE 명문대 탐방!!

IVY LEAGUE에서의 체험!! 꿈과 희망의 시간!!!

출발일: 1/13일 선착순: 30명

미동부 아이비리그 9일 3,790,000~

※특 전: 자국어(영어/중국어), 유명강사의 직접강의, 현지학생에게 듣는 IVY LEAGUE 미국 주요도시 TOUR, 전문인솔자동행

※불포함: 항공TAX, 유류할증료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행 도착 서울버스타도림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모형사양: ALL포함 정급(합숙기준)

빛의만평

- 김중두

살아있네